

사람과 사람 그 속에서 안전을 생각합니다.



(株)三益振興建設
SAMIKJINHEUNG CONSTRUCTION CO., LTD.

(주)삼익진흥건설

김 무 성 부장

흰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도로, 서울에서 2시간여 경부 고속도로를 달려 공주에 도착했다. 머리 위로 내리쬐는 햇살, 야트막한 산에 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 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지나는 도로마다 표시된 갈색의 문화유적지 안내판, 그 옛날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다. 한적한 도로를 지나 공주 시내에 위치한 (주)삼익진흥건설 사무실에서 김무성 부장을 만났다.

예절의 도시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삼익진흥건설은 40여년이 넘게 이곳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한 기업이다. 이곳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김무성 부장, 배꽃 향기 그윽한 나무에서 태어나 (주)삼익진흥건설에 입사한 지 언 17년이 지났다. 입사 초 건설장비를 담당하다 93년 회사에서 안전경영 방침으로 안전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 접해 본 안전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크고 오르기 힘든 산처럼 다가왔다. 넓은 현장에는 안전불감증과 불특정 위험요소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잠재되어 있었다. 부족한 지식을 쌓고 현장을 뛰어다니며 하나하나 안전점검을 하기에는 하루 일과가 너무나 짧아 불철주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도 크고 작은 사고는 어김 없이 일어났고, 그런 사고는 그에게 더 큰 열정과 책임감을 갖게 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의 이마에는 세월의 흔적이 선명하고 머리칼은 반백이 되었다. 세월의 무게만큼 그 동안의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의 이야기 하나 하나에 귀가 기울여 진다. 아침부터 짹짹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 무더운 여름, 다리상판 철근 배근 작업장의 점검을 나갔을 때 이야기라고 한다. 철근을 담당하던 털보 박씨 아저씨는 쇠가 녹을 만큼 뜨거운 작업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거무스레한 얼굴에 머리에는 안전모, 목에는 수건, 안전벨트, 쇠목 묻은 누런 장갑, 그가 말을 건네 왔다. “부장님 이것 한 잔만 드세유” 하며 아이스박스에서 건넨 컵에는 맥주처럼 보이는 액체가 들어 있었다. 작업 중에 술이라니 절대 안 된다고 말하자 술이 아니라는 말에 안심하고 들이켰다. 컵에는 뺏속까지 녹일 만큼 시원한 인삼물이 들어 있었고, 곧 더위와 갈증이 사라졌다. 그 순간 그는 우리네 삶이 모두 똑 같은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 더위와 싸워가며 일을 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바라듯이 나 또한 그들의 건강과 나의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안전을 담당하는 내가 당신들 옆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킬 테니 즐거운 마음으로 부디 안전하게 작업을 마치고 석양을 등지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안전을 통해 인생살이를 말하는 김무성 부장. 결국, 사람과 사람 그 안에 안전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임재근 기자〉